



# 변방에서 중심으로

---

서구의 시간여행

---

---

## 시간 위에 세운 도시, 서구

계잡이 마을에서 산업도시로 변한 반세기.

변화는 빠르고 흔적은 열어젖었지만

이 도시의 본질은 언제나 '성장 속의 삶'이었다.

사람과 산업, 기억이 켜켜이 쌓여 만든

오늘, 서구의 기록.

---

Incheon Seo-gu with Five Keywords

서구를 만든 다섯 가지 키워드

S

Sea

서해의 갯벌과 섬에서 시작된

E

Earth

흙을 쌓고, 독을 이어 만든 새 땅

O

Opportunity

굴뚝과 공단, 일터의 힘이 가득한

G

Global

글로벌 국제도시

U

Urban hub

변방에서 관문, 이제는 허브로

| 서구의 인구수

 **65**만 명

| 서구의 면적

 약 **120** Km<sup>2</sup>

| 한강과 서해를 잇는 아름다운 아라뱃길

 **18** Km

| 구·시립 도서관

 **11** 개

| 공원

 **223** 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24** 개

| 문화·체육시설

 **36** 개

| 노인복지관(문화센터)

 **4** 개



# 1. 역사의 기억

물과 돌, 지명에 새겨진 땅의 기억  
역사의 중심을 스친 땅

8

# 2. 시간의 길

서구, 70년의 기적  
서구는 원래 계와 낙지 천국이었다?  
길과 땅이 열리던 시간  
새 이름과 함께 피어난 산업화의 물결  
바다를 잇다, 도시를 넓히다

14

# 3. 시간의 중심

국제도시 선언, 세계로 나가다  
미래를 여는 도시  
아시아드, 모두의 무대가 되다

26

# 4. 시간의 방향

새로운 시작  
서구라는 이름, Level up?  
바다를 품은 해양도시  
변화의 길목에서, 다시 서구를 그리다

34

# 1

## 역사의 기억

물과 돌, 지명에 새겨진 땅의 기억

역사의 중심을 스친 땅

# 바다로 뺀 땅, 서구의 탄생

지금은 '서구'라 불리지만, 이 땅의 이름은 오래도록 '모월곶'과 '석곶'이었다. 1914년, 부평군의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합쳐지며 처음으로 '서곶면'이라는 행정 명칭이 탄생했다.

모월곶은 반달처럼 휘어진 지형에서 비롯되었고, 물이 많아 '물곶'이라 불렸다고도 한다. 석곶은 꼬챙이처럼 생긴 땅에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구 제도가 도입된 후, 서구는 북구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이름으로 지도에 새겨졌다.

'서구'는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니다. 모월곶, 석곶 그리고 서곶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오랜 시간을 담아 탄생한 이름이다.

부평군 모월곶면, 석곶면 시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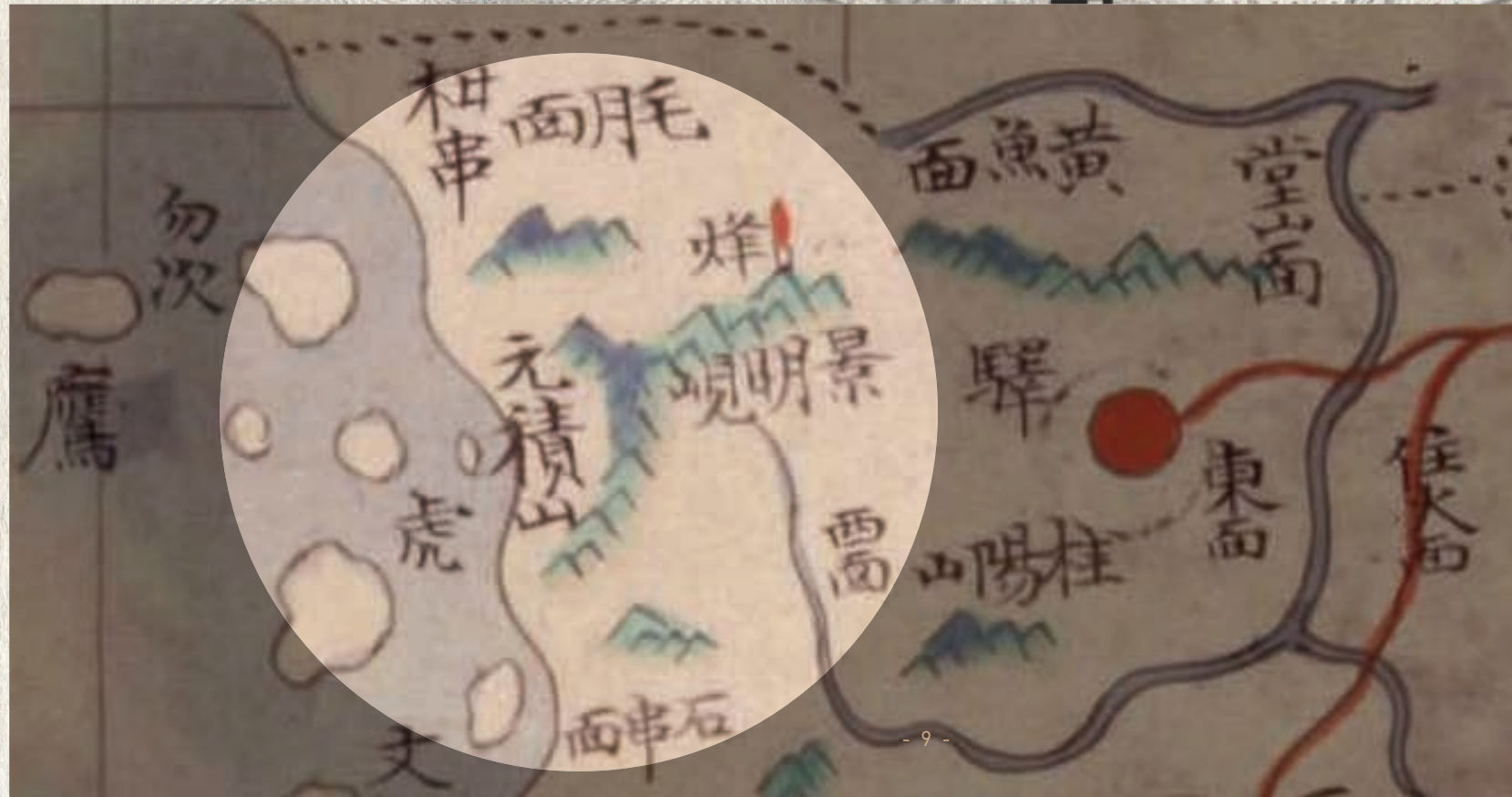
# 서쪽 끝, 경계와 연결의 땅

물길과 산줄기가 교차하던 조선시대, 지금의 서구는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동쪽으로는 원적산과 축곡산 같은 산줄기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호도·응도 같은 작은 섬들이 흩어진 바다가 펼쳐졌다.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경계이자 통로였다.

위급한 소식을 축곡 봉수대의 연기로 전했고, 바닷길을 따라 향로가 열렸다. 조선의 경계 끝에 자리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이 드나들던 땅.

서구는 '경계'이자 '연결'의 땅이었다.

《조선지도》의 〈부평부〉 지도에 묘사된 서구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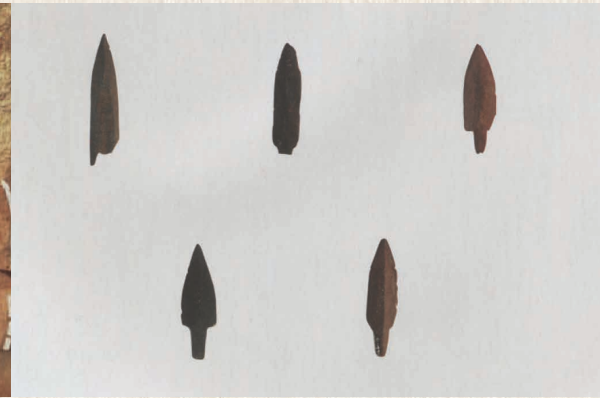




1950년대 안동포 고깃배 사진 ▲



2003년 발굴 조사된 불로동 유적 주거지 ▲



불로동 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촉 ▲

# 역사의 중심을 스친 땅

서구는 역사의 무대에서는 늘 길목에 서 있었다. 오늘날의 서구가 사료에 또렷이 등장하는 시점은 5세기 무렵,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을 장악하던 때다. 《삼국사기》에는 이 지역이 주부토군과 검포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다와 한강이 맞닿은 이 땅은 삼국이 서로 다투던 시절에도 교통과 방어의 요충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 농경과 수렵, 그리고 삶의 기술

유물들은 선사 시대의 검단 사람들이 농경과 수렵을 함께 영위했음을 보여준다. 양날 도끼와 반달돌칼로 밭을 일구고, 석촉으로 사냥을 했으며 토제 어망추로 물고기를 잡았다. 그들은 땅과 산, 물을 두루 이용하며 살아갔던 것이다.



원당동에서 발견된 3호 석관묘 ▲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창 ▲



불로동 유적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구릉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 ▲

## 청동의 시대가 열린다

더 오래된 발자취도 있다. 원당동, 불로동, 검단동 일대의 구릉을 따라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움집터와 화덕자리, 석관묘가 줄지어 나타난다. 이곳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와 흉도, 반달 돌칼, 흙자귀, 화살촉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손끝과 삶의 기술을 생생히 증언한다.

그들은 산기슭에 움집을 짓고, 아래의 평야에서는 벼와 조를 재배하며 살았다. 바람이 불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치고, 저녁이면 움집의 화덕에서 불빛이 떠올랐다. 이 불빛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이어지는 문명의 첫 신호였다.

## 불로동의 고인돌, 남겨진 권위의 흔적

불로동 근린공원에는 지금도 조용히 고인돌 한 기가 남아 있다. 단면에는 사람이 돌을 쪼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석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직접 손을 대어 세운 인공 구조물임을 말해준다. 상면에는 구멍무늬인 성형은 없지만, 발굴된 유적을 종합하면 이 일대가 의식과 매장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땅 아래 잠든 이야기

돌칼과 토기 조각, 화덕의 재는 이곳이 변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옛날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길목, 생활의 중심지였다. 검단의 유적과 원당동의 고인돌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 땅에서도 오랜 세월, 사람의 삶은 계속되어 왔다.”

# 2

## 시간의 길

서구, 70년의 기적  
서구는 원래 계와 낙지 천국이였다?  
길과 땅이 열리던 시간  
새 이름과 함께 피어난 산업화의 물결  
바다를 잇다, 도시를 넓히다



# 1950

흔적은 바뀌어도 길은 이어진다  
서구의 절반은 원래 섬과 갯벌이었다.  
난지도·자치도·소염도 등 34개 섬  
가운데 28개가 매립으로 사라졌다.

#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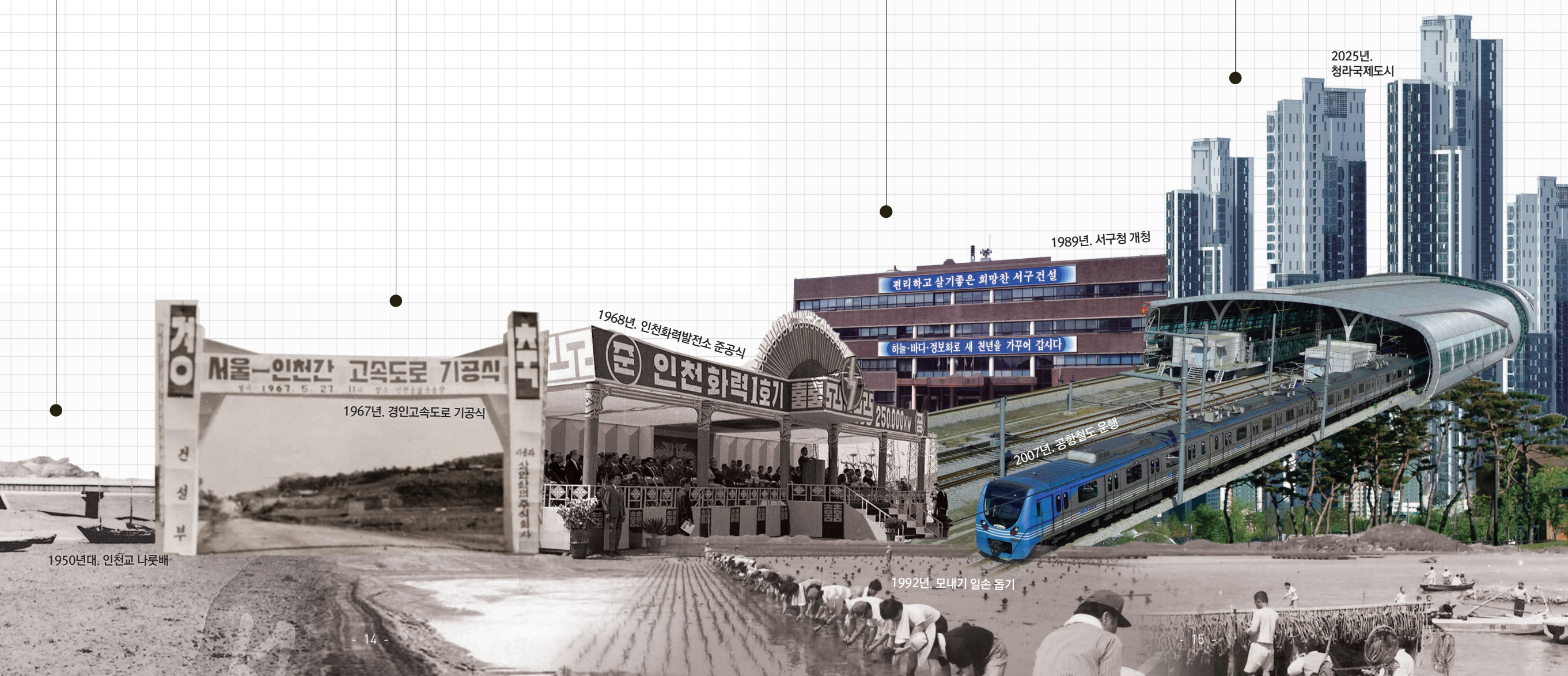
흙 위에 놓인 길, 솟아난 굴뚝  
바닷물을 막아낸 자리 위에 흙이 채워지고,  
땅이 자라났다. 고속도로와 공장이 놓이며,  
마침내 삶과 산업이 뿌리를 내렸다.

# 1990

농업의 리듬, 산업의 박자  
허리 굽혀 모를 심던 손길이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며 도시를 일구는 힘이 되었다.  
이 변화 속에서 서구청이 개청되고  
검단면이 편입되며 지금의 서구 모습이  
갖추어졌다.

# 2025

오늘, 세계와 연결된 도시  
발자국이 남던 갯벌은 흙으로 메워지고,  
그 위에 도시가 자라났다.  
오늘날 그 땅 위에는 국제도시가 들어서며,  
서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1950년대. 인천교 나룻배

1967년. 경인고속도로 기공식

1968년. 인천화력발전소 준공식

1989년. 서구청 개청

원리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서구 건설

하늘·바다·정보화로 새 천년을 가꾸어 갑시다

2007년. 공항철도 운행

1992년. 모내기 일손 돕기

2025년.  
청라국제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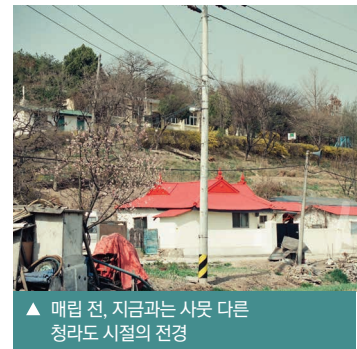
# 서구는 계와 낙지의 천국이었다?

##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서구의 절반은 바다였다.

마을 사람들은 밀물과 썰물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다. 철마산 자락 아래의 갯골에는 게가 기어 다니고, 공촌천 하류에는 낙지가 많아 아이들도 손으로 잡곤 했다. 경서리, 가정리, 공촌리와 같은 해안 마을들은 모두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었다.



1980년대, 장도와 일도 사이 매립 공사 ▲



▲ 매립 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청라도 시점의 전경

## 서구의 지도에는 스무 개가 넘는 이름의 섬이 기록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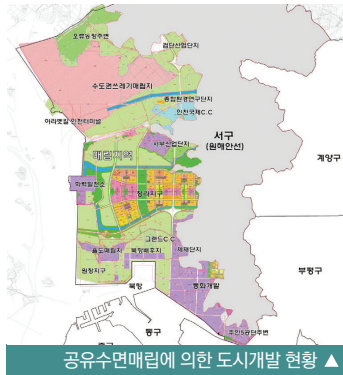
그 이름들은 사라졌지만, 그 섬들이 있던 자리 위에 도로가 나고, 공단이 세워지고, 도시가 자랐다. 서구의 평야와 공단, 신도시의 땅은 바로 그 잃어버린 섬들의 자취 위에 놓여 있다.



▲ 1960년대 중반 섬과 섬을 잇는 청라지구 물막이 공사

## 1960년대 이후, 해안선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1964년 청라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다는 조금씩 육지로 바뀌었고, 1970~80년대에는 동아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립 사업이 이어졌다. 흙과 모래로 메워진 바다 위로 도로가 뚫리고, 제방이 생기며, 공장이 들어섰다. 청라 앞바다와 원창동, 경서동 일대에는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지만, 매립이 진행되며 하나둘 물으로 이어졌다. 푸른 능선과 갯벌이 맞닿던 청라도는 '파란섬(파렴)'으로도 불렸으며, 오늘날 청라국제도시의 이름이 된 그 섬이기도 하다. 그 너머 일도와 울도는 인천 복합화력발전소와 한국 가스공사 기지로 변해 이제는 산업의 상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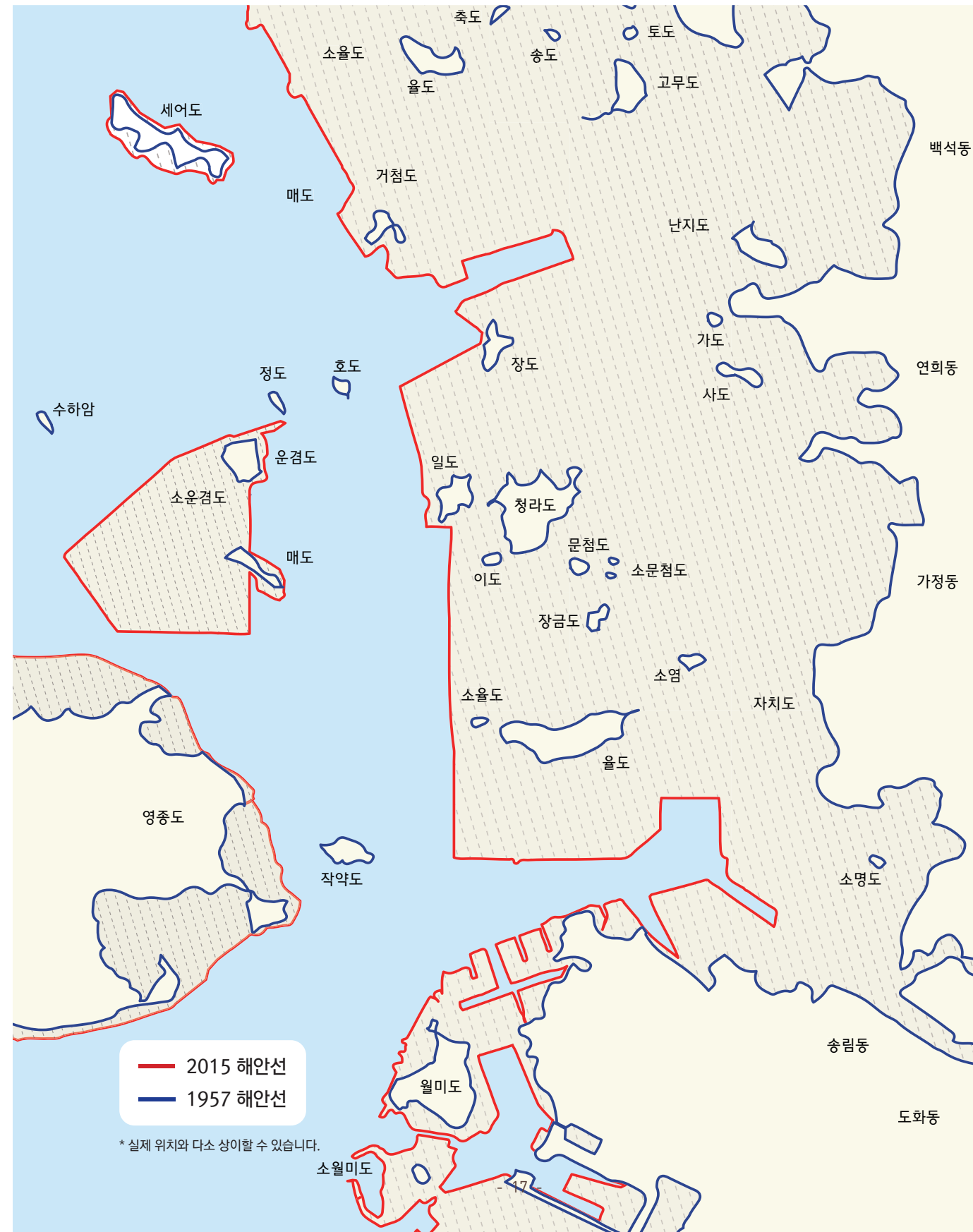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도시개발 현황 ▲



▲ 1980년, 현재 화력발전소가 된 청라도 앞 일도에서 주민들이 배를 타는 모습

## 매립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었다.

바다의 숨결은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위에 사람의 시간이 쌓였다. 오늘의 서구는 더 이상 계와 낙지의 고장이 아니지만, 바다의 기억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청라호수공원의 잔잔한 수면은 옛 갯벌의 숨결을 품고 있고, 공촌천은 한때 바다로 이어졌던 길을 따라 흐른다.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며 풍경은 달라졌지만, 서구의 대지 아래에는 여전히 물 위를 지나온 세월이 켜켜이 흐르고 있다.



— 2015 해안선  
— 1957 해안선

\* 실제 위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960 ————— 1970

## 길과 땅이 열리던 시간



▲ 1966년 7월, 인천시 고속도로 건설안



▲ 경인고속도로 개통식



▲ 인천 복합화력 발전소



▲ 동아그룹이 작성한 김포 매립지 계획

1968년 11월,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문을 열었다. 승용차는 70원, 버스와 트럭은 100원의 통행료. 서울까지 한 시간 걸리던 길은 이제 20분 남짓. 개통 첫 해에 203만 대가 이 길을 지나갔고, 1970년 하루 평균 통행량은 7,813대로 일찌감치 계획치를 넘어섰다. 경인고속도로는 산업화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첫 고속도로로 기록되었다. 그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가며, 도시는 또 다른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서구의 바다와 갯벌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간척과 매립이다. 조차가 크고 섬이 많은 서해안에서 매립은 오랜 숙원이었고 1960년대 후반 서구 연안의 작은 섬들이 제방으로 하나둘 이어졌다. 울도, 장금도, 청라도, 문점도는 1970년대 김포매립지 사업에 편입되며 거대한 육지로 변모했다.

이 시기, 서구는 길과 땅이 동시에 만들어지던 현장이었다. 갯벌과 섬, 그리고 그 위의 마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산업화의 출발선이 놓였다.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되었고, 이어 인천의 기계공업인들이 뜻을 모아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도 나섰다. 공해 문제를 줄이고, 업종별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좌동에 인천기계산업단지가 설립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모은 끝에 일군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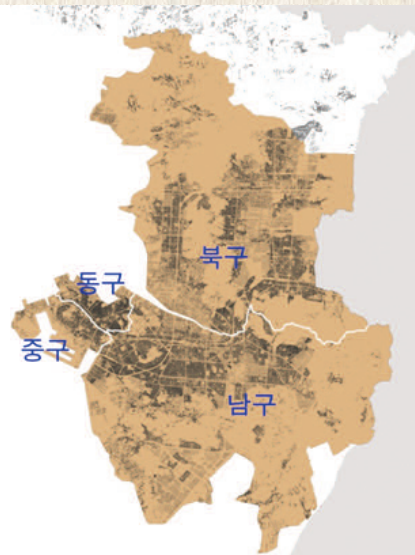
이 단지는 경인고속도로와 지방 국도에 인접하고, 인천항은 3km, 인천국제공항은 20km 내에 있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기계·금속·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지금까지도 서구 제조업의 기반이자 자립 산업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과 상실이 교차하던 1960~70년대, 그 풍경은 서구 변화에 있어서 상징적인 장면이다.

# 1980 새 이름과 함께

# 피어난 산업화의 물결

## | 인천 행정구역의 변화



1968년 4구제 ▲

1980년대는 인천의 공간과 행정이 동시에 변화하던 시기였다. 1981년 직할시 승격에 이어, 1988년에 북구에서 분리된 '서구'가 지도에 새겨졌다. 새로운 구의 출범은 행정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졌고, 이에 맞춰 서구청사가 신축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



1988년 6구제 ▲

새로운 행정 체계는 도시 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졌다. 당시 경서·가정·공촌 일대에 도로와 하수도, 상수도 시설이 정비되며 생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됐다. 1980년대 말에는 공촌정수장이 완공되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이 가능해졌고, 서부산단 조성 논의도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버스 노선이 늘어나며 사람들은 서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좌동 인천수출산업단지 기공식 ▲

1980년대는 서구에 길과 땅이 열리며 산업 기반이 피어나던 시기였다. 바다를 메운 땅 위에 공장과 도로가 생기고, 사람의 손끝으로 돌아가는 작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65만 인구 중 절반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서구의 산업은 거대한 기계보다 손끝에서, 대기업보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 완성된다.



가지런하게 모여있는 산단의 모습 ▲

그 중심에는 인천지방산업단지가 있다. 1965년 조성된 이 공단은 가좌동 일대의 500여 개 기업이 모여 있고, 금속·기계·전기 등 인천의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4년부터는 스마트 산업 단지로 재정비되어 여전히 서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공장은 더 이상 쇳물과 연기로만 상징되지 않는다. 서구의 산업지형은 기술과 혁신의 만남으로 도시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일하는 도시'는 이제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 1990

## 바다를 잇다,

## 도시를 넓히다



▲ 1990년대 서구 지역 매립으로 변화된 해안선

1990년대 초, 서구의 해안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울도·일도·장도·청라도를 잇는 매립사업이 마무리되며, 이전까지 만입되어 있던 해안선이 거의 직선으로 정리되었다. 수십 개의 섬과 갯벌이 연결되며 하나의 육지로 변모했고, 그 위에 산업단지와 도로가 깔리기 시작했다. 특히 청라지구와 경인항 일대는 완전히 재편되었으며, 서구의 물리적 지형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지도 위에서는 선 하나가 움직였을 뿐이지만, 이것은 지역 정체성과 기능을 뒤바꾸는 변곡점이다. 국가 산업기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섰고, 이 변화는 이후 국제도시 개발의 출발선이 되었다.

1995년 3월 1일, 주민 투표와 행정 절차를 거쳐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공식 편입되었다. 역사적 전환이었다.

검단은 원래 김포 생활권에 속해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인천 부평·서구와 가깝고, 주민 생활권도 이미 인천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 56%가 인천 편입에 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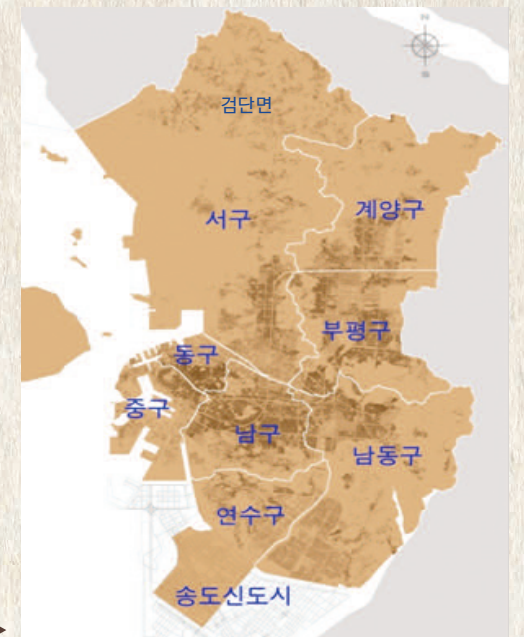
편입과 동시에 검단면 전역은 행정동 ‘검단동’으로 재편되었고, 검단출장소가 설치되어 주민 생활을 지원했다. 이후 검단 지역은 현재는 8개 행정동으로 확장되었다.

편입은 서구의 면적을 대폭 넓혔을 뿐 아니라, 서구가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서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증가했고, 향후 검단신도시로 이어지는 도시 확장의 기반이 되었다.

검단의 편입은 도시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이로써 서구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서북권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982년 서구지역 (국토지리정보원) ▲



1995년 8구·2군제 ▶

# 3

## 시간의 중심

국제도시 선언, 세계로 나간다

미래를 여는 도시

아시아드, 모두의 무대가 되다



# 2000 ————— 2025

## 국제도시 선언, 세계로 나가다

2000년대 들어 서구의 지형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입기 시작했다. 2003년, 청라가 송도·영종과 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되면서 서구는 단숨에 세계와 연결되는 창구로 떠올랐다. 첨단산업과 금융, 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청라국제도시는 미래의 상징이 되었고, ‘국제도시’라는 타이틀은 곧 서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함께 추진된 루원시티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맡았고,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주거지로 자리 잡으며 서구 전체의 생활권을 크게 확장시켰다. 산업, 업무, 주거 기능이 서로 맞물리며 서구는 점차 복합 국제도시의 구조를 갖춰 갔다.

2014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였다. 서구에서 개최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을 증명해냈다. 경기장과 주변 공간은 지금도 문화 체육 시설로 활용되며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00~2020년대의 서구는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었다. 청라의 국제도시, 루원시티의 연결 축, 검단의 대규모 주거지, 아시아드의 글로벌 경험이 어우러진 서구는 세계와 맞닿은 인천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바다와 평야가 맞닿았던 열린 지리와 유연한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남아 미래도시의 모델을 그려가고 있다.



인천의 위상을 상징하는 문화·체육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인천아시아드 경기장 전경



금융, 비즈니스, 주거가 어우러진 청라국제도시 전경

# 미래를 여는 도시

바다 위에 도시가 피어났다.  
청라, 루원, 검단 세 도시는 대한민국 서부의 미래를 그리는 삼각축이 되고 있다.



## 세계로의 관문

### 청라국제도시

#### 서구의 바다를 메워 세운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관문

공항철도와 수도권 순환도로가 교차하며 비즈니스와 금융, 주거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다. 향후 청라시티타워, 스타필드 청라 등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청라는 “서해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 도심 속 새로운 중심지

### 루원시티

#### 서구의 한가운데, 기존 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축

청라의 국제 기능과 부평·가좌의 도심 생활권을 잇는 ‘도심 확장형 신도시’로 행정·상업·주거가 조화를 이룬다. 복합상업시설,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며 루원은 “삶과 도시가 공존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 내륙의 새로운 생활권

### 검단신도시

#### 서구 북쪽의 검단은 인천의 확장을 상징하는 젊은 도시

넓은 주거단지와 공원, 학교,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가족 중심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천1호선 연장과 2호선 연결, 광역도로망이 이어지며 서울·김포와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검단은 “사람이 머무는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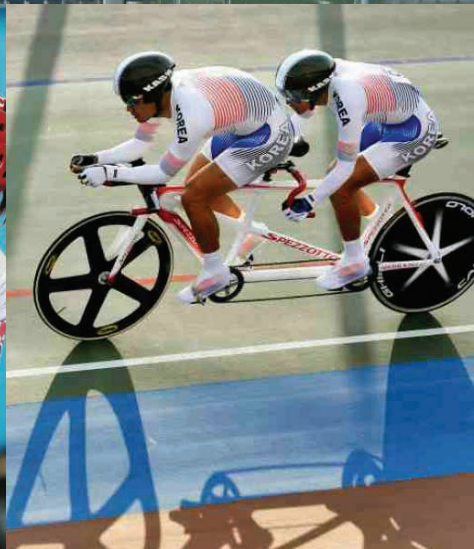
# 아시아드, 모두의 무대가 되다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여자200m 경기



60년 만에 첫 메달을 딴 캄보디아 태권도 여자부문



트랙 남자 개인 경기에서 호흡을 맞추는 한국팀



제7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찬 축제



37회 서구 구민의 날 행사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 관객들

2014년, 인천은 아시아의 시선이 머무는 무대가 되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 제17회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45개국, 9,436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운영 요원이 동원된 대규모 스포츠 축제였다.

이 대회는 인천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리허설이었다. 서구는 62,000석 규모의 경기장과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교통·보안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경험은 훗날 인천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표준이 되었다.

한국은 228개 메달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교통·숙박 등 안정된 인프라와 시민·자원봉사자 2만여 명이 함께한 운영 경험으로, 시민이 만든 축제로 평가받았다.

아시안게임 이후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스포츠 중심의 공간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대규모 K-팝 콘서트, e스포츠 대회,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이끄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 김장대축제 등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축제가 개최되며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경기장 내에는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건강한 보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맨발 산책길'이 조성되어, 일상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 4

## 시간의 방향

새로운 시작

서구라는 이름, Level up?

바다를 품은 해양도시

변화의 길목에서 다시 서구를 그리다



# 새로운 시작



- 검단구**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아라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일부)
- 서구**  
연희동, 청라 1~3동, 가정 1~3동, 신현원창동, 석남 1~3동, 가좌 1~4동, 검암경서동, 오류왕길동(일부)

2020년대 중반, 서구의 면적은 119.06km<sup>2</sup>로 인천에서 가장 넓었고 인구는 65만 명을 넘어섰다.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를 단일 자치구가 지탱하는 상황에서 행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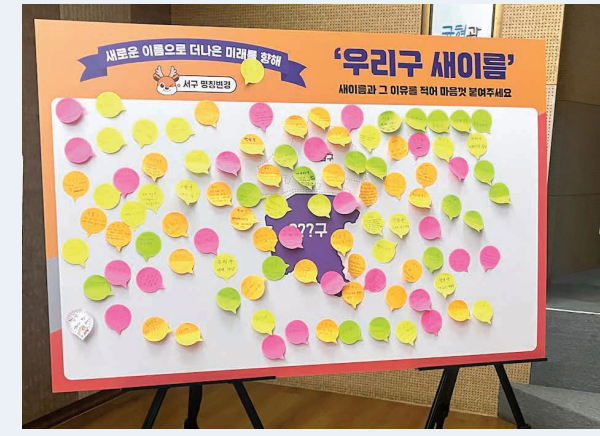
경인 아라뱃길은 광활한 서구를 가로질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나누었다. 검단에서 서구청까지는 13km, 버스 왕복에 한 시간이 걸렸다. 여권 발급이나 복지 상담을 위해 수많은 주민이 먼 길을 오가야 했다. 행정과 생활권의 거리는 곧 일상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신도시에는 유아·청소년 인구가 늘었고, 원도심에는 고령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행정 수요가 나타났다.

주민 불편과 행정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두 지역이 고유의 특징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서구는 두 개의 구로 나뉘게 되었다.



‘서구’라는 이름은 의외로 단순하게 지어졌다. 한때 이 지역은 ‘석곶면’이라 불렸는데, 1988년 인천 북구에서 분리될 때 새 행정명이 필요했다. 그때 선택된 것이 바로 ‘북구의 서쪽’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옛 지명 ‘석곶(돌고지)’의 의미를 더한 ‘서구’였다. 이 이름은 어느덧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며, 주민들의 삶 속에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도시만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아낼 이름을 준비하고있다. 새로운 것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려갈 내일이다.

분구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출발선이다.



# 서구라는 이름 Level up?

- 조선시대 | 부평부 모월곶면
- 1914년 | 부천군 서곶면
- 1968년 | 인천시 북구
- 1988년 | 인천직할시 서구
- 1995년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편입

‘서구’라는 명칭은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붙여진 단순한 방위 개념에 불과했다.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이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년 6월, 서구청 대회의실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의원과 주민, 관계자 등 340여 명이 참여한 현장에서는 분구 일정과 구 명칭 변경의 취지가 주민의 질문,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 이 흐름은 설문 조사로까지 이어졌다.

7월 21일 실시된 구 명칭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이름은 ‘서해구’. 전체 응답자의 58.45%가 선택했다. 서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했고 이후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히 ‘서쪽 구’였던 이름은 곧 사라지고, 대신 ‘서해를 품은 도시’라는 더 넓은 상징을 안게 된다. 바다를 향한 이름은 서구가 지향하는 미래의 공간성과 정체성을 담아내며, 새로운 구로서의 재탄생을 예고한다.

이와 더불어, 검단은 1995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었다. 현재 검단은 8개 행정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7월 서구청

서구는 인천의 한가운데 자리하면서도 바다와 맞닿아 있다. 동쪽으로는 계양·부평, 서쪽으로는 영종과 인천공항, 북쪽으로는 곧 신설될 검단구와 강화군, 남쪽으로는 동구·미추홀구·남동구와 접한다. 여기에 북항과 아라뱃길이 더해지며, 서구는 바다와 내륙을 동시에 품은 해양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철도망이 모두 서구를 지난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3연륙교, GTX 노선 논의까지. 어느 길을 택해도 공항과 서울을 잇는 길목에는 서구가 있다.

서구는 오랫동안 ‘지나는 도시’로 불려 왔다. 하지만 청라·루원·검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머무는 도시, 더 나아가 서해와 연결된 해양·물류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

# 바다를 품은 해양도시

- 1968년 | 경인고속도로 개통
- 2001년 | 인천 국제공항 개항
- 2003년 |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18년 | 루원시티 개발 본격화

# 변화의 길목에서, 다시 서구를 그리다

갯벌이 땅이 되고, 섬이 마을이 되며  
서구는 늘 변화 속에서 도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의 구는 둘이 되고,  
이름도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구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도시의 주인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함께 만들어갈 내일도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페이지별 사진 출처

- 8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 9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 10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서곶사진누리
- 11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 14 | 서곶사진누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간물 <인천 서구의 산업-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 15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간물 <인천 서구의 산업-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 16 | 서곶사진누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간물 <인천 서구의 사라진섬 남은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간물 <인천 서구의 산업-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간물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2>
- 18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간물 <인천 서구의 산업-서구산업의 태동과 성장>,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 19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 20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서곶사진누리
- 22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서곶사진누리
- 23 | 서구사 上-서구의 발자취, 서곶사진누리
- 24 | 서곶사진누리
- 25 | 서곶사진누리
- 26 | 서곶사진누리, 인천아시아드기념관, 인천광역시 인천투어, 인천광역시
- 27 | 서곶사진누리, 인천교통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
- 28 | 서곶사진누리,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서
- 30 | 인천아시아드기념관
- 31 | 인천아시아드기념관
- 34 | 인천광역시 서구청
- 35 | 인천광역시 서구청
- 36 | 서곶사진누리
- 37 | 서곶사진누리
- 38 | 인천광역시 서구청



서구 TV



서곶사진누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편집: 홍보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전화: 032-560-4143

팩스: 032-560-2709

홈페이지: [www.seo.incheon.kr](http://www.seo.incheon.kr)

디자인·제작: 중앙프린텍(032-883-8195)